



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동명부대 고정감시초소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② 호국 동명사 세계평화기원법회. ③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 환담. ④ 세계평화기원법회에는 스리랑카 부대원도 참석했다. ⑤ 총무원장 스님 격려방문 기념해 동판 제막식. ⑥ 조계종 방문단이 부대를 돌아봤다. ⑦ 세계평화기원법회 후 기념촬영. ⑧ 총무원장 스님은 부르클리야 모스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프티와 만났다.

“전쟁종식 평화안착 위해 종교계 함께 노력”

부대원과 군복무 경험 나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오전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들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40여년 전 소총수로 군복무했던 경험을 소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스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임무는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가정으로 귀환하는 일이다. 마지막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자비나눔 기금으로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총무원장 스님은 ‘국민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긴 뒤, 노래방과 체육관, 생활관, 복카페 등 동명부대 주둔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명부대도 의장행사와 기념동판을 제작하는 등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사·지역 종교인들과 만찬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계종 방문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오후 주 레바논 한국대사 및 지역 인사, 5대 종파 종교인 등 20여 명과 만찬을 갖고 우정을 나눴다. 만찬에서 하산 압둘라 시아와 무프티는 “오늘 불교와 이슬람의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종교간 화합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압둘 무센 알 후세이니 티르연합시장도 “서로 종교와 문화는 다르지만 모두가 마음을 나누는 자리다. 한국과 레바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이곳에 오신 총무원장 스님과 방문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종일 주 레바논 한국대사는 “앞으로 한국과 레바논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동명부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레바논 동명부대 방문

조계종 방문단이 현지시간으로 3월1일 레바논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찾았다. 이번 조계종 방문단에는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 육군사관학교 군종실장 함현준 법사,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동진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이 함께 했다. 동명부대에서 이틀간 머문 방문단은 호국 동명사에서 장병들과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병행하고, 하산 압둘라 시아 무프티, 미카엘 아브라스 로마가톨릭 대주교, 나빌 하지 마론가톨릭 대주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평화안착을 위한 종교계 역할을 논의했다.



지역 주민위해 생활용품 지원

조계종 방문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동명부대에 임무를 펼치고 있는 민간인 마을인 부르클리야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물품 공여식에서 참석했다. 부르클리야 마을은 작전 구역 중 유일한 이슬람 수니파 마을로, 동명부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료를 비롯해 태권도, 컴퓨터, 재봉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된 물품은 유아용품부터 침구류, 의류, 학용품 등 2800여 점으로 국내 아동용품 업체 제로 투세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것이다.

함남규 동명부대장은 “한국에서 스님들이 오신 가운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됐다”며 “전달된 물품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명부대, 방문단 경호에 만전

최근 중동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명부대는 레바논을 찾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방문단을 위한 경호에 만전을 기했다. 테러 등에 대비해 동명부대 측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부터 남쪽으로 80km 떨어진 부대 주둔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품 싣 없는 경호작전을 펼쳤다. 각 차량에는 방탄조끼와 개인화기를 소지한 경호원들이 동행했으며, 이와 더불어 원격 폭탄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교교란을 위한 점멸과 레바논 치안군 경호 인원들도 힘을 보탰다. 특히 경호인원들은 일정 내내 방문단이 동명부대 주둔지 밖에서 이동하는 동안 함께 하며 모든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레바논 티르=엠텔기 기자 che11@ibulgyo.com

雪靖큰스님과 함께하는 그리스, 터키 문명기행

‘2015년 승려연수교육’으로 설정스님과 함께하는 그리스, 터키 문명기행을 4월 6일(월)부터 15일(수)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은 인류문명의 심장인 아테네와 세상의 중심인 오파로스의 델포이 신전, 그리고 절벽 위의 수도원으로 유명한 메테오라 수도원, 호메로스 ‘일리아드’의 무대인 트로이와 로마유적의 광휘로 눈부신 에페수스의 유적들, 석회암 온천의 파묵칼레와 지중해의 찬란한 보석과도 같은 안탈라, 이슬람 수피즘의 성지인 콘야와 터키의 수도 앙카라, 그리고 카파도키아의 경이로운 장관들... 동·서 문명의 융광로이자 옛 비잔티움의 영화가 깃든 이스탄불! 그곳에서 시인이 지은 블루모스크와 예수의 원형이 있는 아야소피아 사원, 그리고 동·서양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갈라타 사라이 다리 등을 방문합니다.

□ 교육일정: 4월 6일(월) ~ 15일(수)
(음 2월 18일 ~ 27일) (9박 10일)

□ 동참금: 2,790,000원

□ 접수마감: 2015년 3월 23일(월) 까지

□ 장 소: 인천-이스탄불-아테네-메테오라-차나칼레-트로이-에페수스-파묵칼레-안탈라-카파도키아-카이세리-이스탄불-인천

□ 강의내용: 강의 1. 그리스, 터키의 역사와 문화
강의 2. 그리스, 터키의 수도 아테네와 앙카라의 유래
강의 3. 로마 유적 제대로 알기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주관여행사: 아제여행사

● 접수 및 문의: Tel 02)730-4008, Fax 02)725-5006